

Vol 126

언론중재위원회 NEWS (구 PAC News)

언론 사람

www.pac.or.kr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Special News

2010 언론중재위원회 결산

12
2010

CONTENTS

2010.December. Vol 126



- | | | |
|----|-----------|-------------------------------------|
| 03 | 이달의 주요뉴스 | 자살보도 정책심포지엄 개최 |
| 04 | 특집 | 2010 언론중재위원회 결산 |
| 06 | 위원단상 | 光化·敦化·弘化·興化·惠化... (서울제3중재부 김정탁 위원) |
| 07 | 직원마당 | 나는 오늘을 사는가? (정책연구팀 최명진) |
| 08 | 조정 후기 | 진실에 다가서기 (전북사무소장 임종우) |
| 09 | 백승찬의 영화세상 | 가족영화 |
| 10 | 이런얘기 저런얘기 | 커피 드라마 (2) |
| 11 | 기고 | 세상을 여는 아침, 최현정입니다!
(최현정 MBC아나운서) |
| 12 | 위원회 소식 | |
| 13 | 사건 처리현황 | |
| 14 | 위원동정 | |



“자살 방지를 위한 언론사의 인식전환 필요”

언론중재위원회 ‘자살과 언론보도’ 심포지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지난 1일 프레스센터에서 자살예방 관계기관과 언론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사회의 자살과 언론보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회 문방위 진성호 의원의 축사로 시작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매우 위험한 실태이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언론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첫 번째 주제인 ‘국내 자살 현황과 문제점’ 발제를 맡은 하규섭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명으로 가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살의 정확한 원인과 증가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결책으로 ▲자살 기도자 및 주변인물에 대한 관심 ▲자살 원인 등에 대한 조사연구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이를 위한 법적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역시 “생명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자살예방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맹호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자살률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살예방을 위해 언론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집중 제기됐다. ‘자살보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창룡 교수(인제대 신문방송학)는 “2004년 제정된 ‘자살 언론보도 권고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매체 간 경쟁 심화로 자살보도의 폐해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는 소홀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 규제장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언론사의 인식전환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충헌 KBS의학전문기자는 “언론사의 자율 노력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가 자살보도 권고기준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정권고’에만 그칠 게 아니라 해당 언론사가 이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리 / 이진애(기획팀) 사진 / 김민정(홍보팀)

2010년 언론중재위원회 결산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 2010년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시행된 개정 언론중재법에 따라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중재 신청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그간 축적해 온 언론피해 구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지난 1년을 돌아본다.

〈편집자 주〉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2년차, 인터넷 피해구제 원활

지난 해 8월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되어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으로 포함된 지도 만 1년이 넘었다. 올해 들어 12월 22일 현재 접수 처리된 2,149건의 조정신청 사건중 인터넷 뉴스 서비스 대상 사건은 839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이 중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건수는 모두 701건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의 여러 가지 우려를 딛고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는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초상권 침해 사건에 대해 최초로 포털에 대한 독자적인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지는 등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 외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까지 포털 피해구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포털 관계자들도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자신들이 취재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부담이 컸으나, 최근에는 조정·중재 심리에 적극 참여하고, 조정·중재 신청대상 기사에 대한 표시의무 준수 등 위원회의 피해 구제 절차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별도로 인터넷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과제였다. 중재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광주에서 '개정 언론중재법과 인터넷 매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오프라인 매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터넷 기반 매체 뉴스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시행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등에 의한 피해구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피해구제 실효성 증대 방안 모색

지난 3월 열린 정기 위원총회에서 권성 위원장은 "그간 이뤄 온 양적 성장에 걸맞게 언론피해 구제의 질적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피해구제 보도의 위치와 크기 등을 격상시키는 한편 실질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국민정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외에도 손해배상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부응하여 6월 11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중재위원 워크숍에서는 피해구제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의가 이어졌다. 김재원 위원(제주중재부)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의 게재 지면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양한 피해구제 보도방식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현우 위원(서울제1중재부)은 손해배상 제도의 정착을 위해 "중재위원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서면 제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조사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중재위원회가 올 8월말까지 피해구제 보도문

의 크기와 위치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 분석한 바에 따르면, 원 기사 대비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는 2010년 21.1%로 전년 대비 7.4% 포인트 상승했으며, 피해구제보도문이 원 기사와 동일한 지면에 게재된 비율은 2010년 43.2%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연중 가동

2010년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2일)를 시작으로 재·보궐선거가 두 차례 치러지는 등 연중 선거가 있는 해였다. 따라서 올해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설치되어 정기간행물 선거기사의 불공정 여부를 심의했다. 2월 1일 지방선거에 맞춰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하반기 재보궐선거 기사심의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모두 190건의 불공정 선거기사를 심의 의결했다. 양삼승 선거기사심의위원장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위원들의 합리적 의견과 활발한 토론 덕분에 한 해 동안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하며, “매년 수차례에 걸쳐 선거 또는 보궐선거 등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동일한 위원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능률성과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살 보도 관련 심포지엄

유명인들의 자살이 유난히 많은 해였다. 일부 언론이 유명인의 자살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이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되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중재위원회는 2004년부터 자살관련 보도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꾸준히 시정권고를 해 오고 있었으나, 자살관련 보도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12월 1일 정책 심포지엄을 열어 언론보도가 자살문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3면 기사 참조)

인터넷을 통한 위원회 알리기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되고, 인터넷 기반 뉴스의 피해구제가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위원회 홍보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중재위원회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네이버에 전문상담 서비스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대표적 국내 검색엔진 네이버 ‘지식 IN’과 네이버 ‘Q&A’ 서비스에 언론피해 관련 전문상담 코너를 개설해 네티즌들의 질문에 위원회 변호사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주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네이버 ‘지식IN’에만 약 1,100건의 질문이 등록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에는 기존의 ‘언론분쟁’ 메뉴는 물론 ‘손해배상’, ‘지적재산권’, ‘재판 소송 절차’ 등 다양한 영역에 올라 있는 언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적 소통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들과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3월 31일자로 공식 트위터(@pac_news)를 개설했다. 12월 20일 현재 팔로워는 1,240명이다.

질문	답변	작성일	답변일
불법복사	정답률 100%	10/11/11	
전국동시지방선거사태에 대해 3개월간 제정당헌정당 제정당...	정답률 100%	10/11/11	
대한 체육진흥재단	정답률 100%	10/11/11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국민	정답률 100%	10/11/11	
연방수사국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고용한 국민	정답률 100%	10/11/11	
연방수사국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고용한 국민	정답률 100%	10/11/11	
연방수사국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고용한 국민	정답률 100%	10/11/11	
연방수사국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고용한 국민	정답률 100%	10/11/11	
연방수사국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고용한 국민	정답률 100%	10/11/11	
연방수사국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고용한 국민	정답률 100%	10/11/11	

소식지 1만부 시대

언론중재위원회 소식지 **인론** **사람**이 2010년 2월호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선을 보였다. 기존 소식지가 중재위원회 사내보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반면, 새로운 소식지는 편집 디자인을 개선하고 내용을 보강하여 월 1만부를 발행, 전국에 배포되고 있다. 내년에도 중재위원회 소식지 **인론** **사람**은 중재위원회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언론피해 구제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光化 · 敦化 · 弘化 · 興化 · 惠化...



김 정 탁 위원
(서울제3중재부,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광화(光化)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빛(光)으로 화하다(化)’이다. 이 이름에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내린 임금의 교지가 정문인 광화문을 통과하면서 만백성에게 생명의 빛으로 화해서 다가갔으면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다. 경복궁의 경복(景福)이 ‘햇빛(景)이 내린 복(福)’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이것이 정문을 통해 나갈 때 생명의 빛으로 화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매우 타당하다. 왕도정치의 이상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될 수가 있을까? 게다가 백성들이 수없이 지나가는 궁궐 앞에 몇몇하게 게시했기에 자신감 있는 통치자의 모습마저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경복궁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니다. 창덕궁의 창덕(昌德)은 ‘덕이 창성하다’는 뜻인데 창성한 덕이 돈화문(敦化門)을 지날 때 ‘두텁게(敦) 화했으면(化)’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즉 임금의 교지가 1~2년 가면 쉽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지속되라는 의미이다. 창경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창경(昌慶)은 ‘경사로움을 창성케 하다’는 의미인데 창성한 경사로움이 정문인 홍화문(弘化門)을 지날 때 ‘넓게(弘) 화했으면(化)’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즉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져 나갔으면 하는 염원인 것이다. 경희궁(慶喜宮)의 홍화문(興化門), 동소문의 정식명인 혜화문(惠化門)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계 사람들은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광장이라고 여긴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역사는 일천한 반면 민주제와 반대되는 권위주의제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지 절대왕정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권위주의 체제 자체를 우리들의 머리 속에서 지우고 싶을 뿐이다. 그렇지만 조선의 궁과 그 궁의 정문 이름에 입각해서 정치를 펼 수만 있다면 오늘날 포퓰리즘의 위험에 마냥 노출된 민주주의 체제보다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선은 세종대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계몽군주를 배출한 나라이다.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종을 세계 역사상 가장 으뜸가는 계몽군주로 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다. 백성이 문자를 해독하면 통치에 방해된다면서 높은 문맹률을 방치했던 것이 양의 동서 역사를 불문하고 공히 나타난 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세종은 광화문의 이름에 가장 부합하는 계몽군주일 것이다.

이처럼 광화문 광장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의 혼과 정신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대표적 공간이다. 이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상징성이 높은 내용, 즉 기의(signified)들이 많다는 말이다. 사실 세계의 모든 광장들은 이런 의미 있는 기의들을 발굴해서 이를 기표로 표현해 내기에 혈안이다. 그것이 천안문광장이고, 개선문광장이고, 콩코드광장인데 이런 세계적 명성을 누리는 광장조차도 광화문광장이 지닌 상징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광장은 내놓을만한 기의들이 부족해서 기표(signifier)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서울의 여의도광장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 기의는 빠지고 토목공사 같은 기표만이 존재해서이다.

언론중재위 회의를 하러 갈 때면 일부러 걸어서 가는데 그 때마다 광화문을 어김없이 지난다. 2년 전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단장했지만 어디를 둘러보아도 조상들의 수준 높은 문화 마인드를 광장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면 광장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없다. 그런 광장을 가리켜 우리는 성형수술 광장이라고들 말한다. 서울시에 요즘 유행하는 공공디자인이 이런 차원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요즘 사람들이 조상의 얼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이런 글을 한번 써 보았다.

나는 오늘을 사는가?

최근 불안한 안보상황의 영향인지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확인을 하다 제가 대답을 할 차례가 되면 질문을 했던 분은 기대에 찬 눈빛을 보입니다. 그러나 안 갔다 왔을 거라는 기대와 확신의 중간쯤 되는 표정이 묻어나던 얼굴은 병장 만기제대라는 얘기에 실망이라도 한 듯, 곧 시큰둥한 표정으로 변합니다. 몇 번 이런 일을 겪다보니 요즘처럼 군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이 다행이라 생각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연말모임에서도 군 관련 얘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병역사항에 대한 고백부터 되풀이 합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PX에서 빵을 팔았던 친구는 군이 복지근무지원단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은근히 카투사 복무 사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친구들도 요즘은 자중합니다. 해병대를 나온 친구는 이제 지겨울 법도 하건만 군 생활이 인생에 다시 못 올 절정기였던 마냥 또다시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면제를 받은 친구들의 이야기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군대를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간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듣다보면 우리 사회가 저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줬기에 술자리의 가벼운 얘기에 저토록 강력한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지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분명 만기제대를 했음에도 군 생활에 대해서는 한 마디를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군 생활에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 과정에서 손에 제법 눈에 띄는 크기의 화상을 입은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훈련 중 화염방사기에 상처를 입었노라고 장난처럼 말하곤 했습니다만, 사실 그 상처는 취사장에서 입은 것입니다. 친구는 선임병과의 갈등으로 장기간 취사 지원을 나가 있었습니다. 튀김요리를 위해 기름을 붓던 중 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 친구는 군 생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다보면 문득 떠오르는 물음이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힘든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한 친구는 의식적 왜곡을 동원해서까지 실제 경험을 부풀려 무용담을 자랑하고, 군 생활 중 상처가 남은 친구 또한 의식적으로 그 경험 자체를 회피하고 부정하는 상황. 그것은 어쩌면 오늘의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자기 확인을 위해 과거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럴듯한 과거는 부풀리고, 과거의 상처와 잘못에 대해서는 의도적 망각, 또는 정당화를 시도합니다. 과거의 성취를 부풀리는 것은 오늘의 내 삶에 정당하지 못함이고, 과거의 상처와 잘못을 대면하지 못하는 것은 치유와 반성이 이뤄지지 않아 그 상처나 잘못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여전히 아픔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의 크기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과거에 갇혀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분명 제 생활 속에서도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생활에 불만이 쌓이면서 하루 하루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는 동력을 잃고, 마음과 행동을 살피는 반성과 성찰의 능력은 둔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에 대한 치유와 회복,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감각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는 한 동안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잘못이 현재의 나를 괴롭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를 파괴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생각과 삶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일기에 대해서는 파란색 펜으로 코멘트를 달기도 합니다. 파란 글씨가 많아질수록 내가 생각대로 잘 살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삶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과거의 껍데기를 둘러쓰고 오늘을 살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오늘까지 아파하지 않는 온전히 오늘을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을 순간순간 돌아볼 때마다 항상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 명 진 (정책연구팀)

‘게이트 키팅’의 중요성

임종우 (전북사무소장)

#1. A 뉴스통신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OO당 전북도당에 들이닥쳐 시의원후보 B씨 공천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취재·보도했다. 시위자들은 B씨가 과거 공금을 횡령한 바 있고, 불륜 의혹이 있으며, 위장전입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 내용에는 B씨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실명이 적힌 파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의 모습을 사진과 같이 게재함으로써 B씨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했다. 보도는 시위자의 주장만을 인용하였을 뿐 B씨의 반론이나 사실 확인 노력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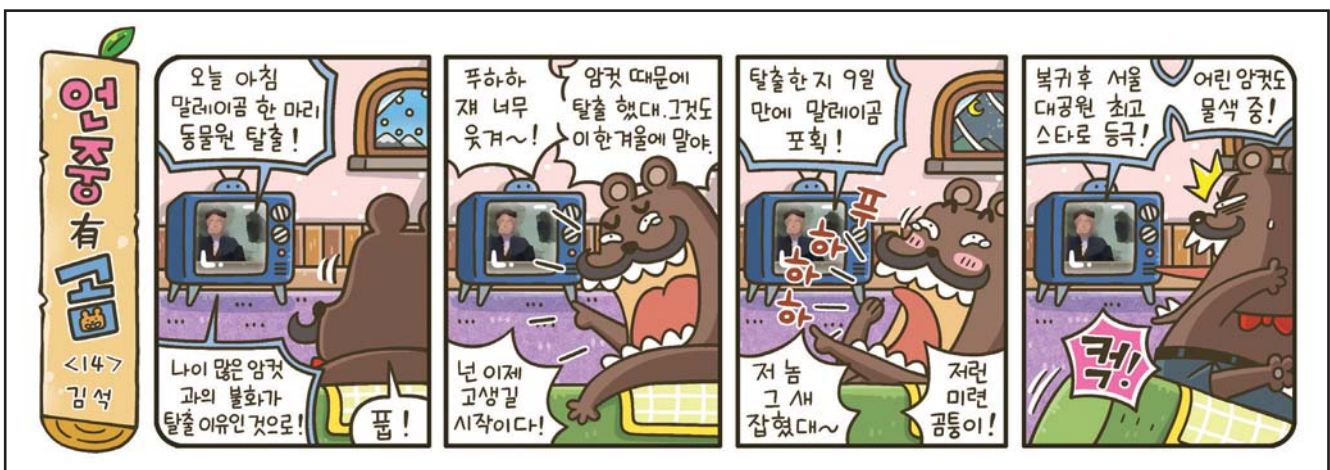
#2. 지역 일간지 C 신문은 OO시청의 복합기 임대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점을 볼 때 사무용품 업자와 뒤통자 거래 의혹이 있다며 일주일간 5회에 걸쳐 ‘도둑’, ‘수법’, ‘완전범죄’, ‘증거인멸’ 등의 용어를 써서 보도했다.

위 두 사례 모두 각각 B씨, OO시청의 조정신청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었고 조정결과,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성립이 이루어졌다.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언론사의 ‘게이트 키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 뉴스통신은 지역에서 생산한 뉴스를 지역 내에서 걸러내 서울 본사로 송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후, 본사로 바로 송고하고 본사에서 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생산한 뉴스를 다른 언론사에 신속히 제공해야 하는 뉴스통신의 매체 특성상 지역에서 매시간 올라오는 기사에 대해 본사에서 일일이 걸러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C 신문은 상황이 더 나빴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OO시 출입기자는 기자경력이 한 달도 못되었다. 별다른 사실 확인 없이 복합기 사용액 추정치와 사무용품 관련 업자의 이야기만 듣고 쓴 기사를 일주일간 5회에 걸쳐 내보낸 것은 C 신문이 정론을 포기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런 기사를 쓰도록 조장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든다.

과거에 비해 그 정도가 낮아진 감은 있으나, 일반 독자는 여전히 언론 보도를 신뢰한다. 언론사의 이름으로 생산된 기사는 기본적으로 언론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보도된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보도는 일부 몰지각한 누리꾼에 의해 가공된 가짜 뉴스나 ‘아님 말고’ 식의 소위 증권시장 ‘짜라시’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 〈헬로우 고스트〉(왼쪽)와 〈라스트 갓파더〉의 한 장면

한국영화의 최대 관객층은 10대 후반~20대 중반 여성이었다. 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흥행 가능성이 다른 어떤 영화보다 높았다.

한국 영화계가 '가족영화' 시장에 본격적으로 눈뜬 것은 2007년 외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예상 밖 흥행 성공을 즈음해서였다. 관객객이 없는 밤이면 박물관의 전시물들이 살아 움직인다는 설정의 이 영화는 가족 단위 관객의 호응에 힘입어 500만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다. 데이트용 영화가 한 번에 2장의 티켓을 판매한다면, 가족영화는 3~4장의 티켓을 판매할 수 있다. 〈캐리비안의 해적〉과 〈트랜스포머〉 시리즈, 〈과속 스캔들〉의 성공은 가족 관객의 형성과 함께 찾아왔다.

가족이 함께 영화 보기 좋은 연말, 연시를 즈음해 2편의 한국형 가족영화가 선보인다. 〈헬로우 고스트〉는 〈과속 스캔들〉의 주연 차태현을 기용했다. 세상 누구도 찾지 않는 고아 상만(차태현)은 외로움에 지쳐 자살을 결심하지만 매번 실패한다. 또 한번의 투신 후 병원에서 눈을 뜬 상만은 4명의 귀신을 보기 시작한다. 귀신들은 상만의 몸을 통해 생전 못 다한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없기에, 상만은 변태 영감, 골초 아저씨, 울보 아줌마, 먹보 아이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다.

네 귀신에게 차례로 빙의되는 차태현의 1인 5역 연기가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영화는 요란한 웃음 대신 결말의 감동을 더 강조한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줄 알았던 남자가 주변의 도움으로 가족의 따뜻한 정을 차츰 알아간다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실제 4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차태현은 시나리오에 있다 해도 욕이라면 말하기를 주저할 정도로 '밟지 않은 역'을 잘 해내는 배우다. 자살 시도, 외로움, 귀신 등 자칫 우울하고 무서울 수 있는

소재지만, 차태현의 낙천적인 표정 연기 덕에 가족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됐다.

〈라스트 갓파더〉는 코미디언 심형래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작품이다. 〈디 워〉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작품성에 대한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그가 이번에 본업인 코미디로 돌아왔다. 〈라스트 갓파더〉의 주연

은 놀랍게도 영구다. 영구는 마피아 대부인 돈 카리니를 찾아 뉴욕에 온 뒤 조직 후계자로 지목돼 마피아 수업을 받는다. 영구 때문에 후계자의 꿈을 접게 된 2인자는 영구의 마피아 교육을 맡지만, 영구의 털털어진 행동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한다. 영구는 위험에 빠져있던 라이벌 조직 보스의 외동딸을 우연히 구해주면서 그와 친구가 된다.

〈라스트 갓파더〉는 〈디 워〉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할리우드에서 촬영됐다. 영구의 아버지인 대부는 할리우드의 명배우 하비 케이트일이 맡았다. 화면 구성은 영락없는 할리우드 영화인데 그 안에 영구가 나왔다는 설정 자체가 코믹하다. 한국의 코미디 영화로는 많은 예산인 150억원대 제작비가 투입됐다. 제작사측은 배급 조건이 좋은 미국 배급사와 협상하면서 미국 개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심형래 감독 역시 〈라스트 갓파더〉를 '가족영화'의 범주에서 바라봐 주길 원하는 눈치다. 그는 "영화에서 칼을 쓰거나 욕을 하지 않는다. 5살 어린아이부터 80세 할아버지까지 모두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심 감독이 전한 바에 따르면 현재 73세인 하비 케이트일에겐 뒤늦게 얻은 4살 아이가 있다고 한다. 케이트일은 심 감독에게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영화를 잘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고, 심 감독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심 감독은 개봉을 앞두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변치 않는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들과 비슷한 시기, 〈해리 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죽음의 성물〉 1부, 〈걸리버 여행기〉 등 가족영화 범주에 묶일 수 있는 외화가 개봉한다. 〈헬로우 고스트〉와 〈라스트 갓파더〉의 두 한국영화가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커피 드라마 (2)

오랜 세월 동안 유럽과 이슬람 세력 사이에 벌어졌던 치열한 충돌은 겉으로 보기엔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두 거대 종교의 혈투였지만, 그 내면에는 와인 문화권과 커피문화권의 대결이라는 문화사적 의의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었다. 와인이 기독교의 음료이며, 예수의 보혈로 숭배 받은 반면, 커피는 죽음과 싸우며 기도하던 마호메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건네 준 것으로, 이슬람을 대표하는 음료였다. 긴장을



완화하고 흥겨움을 줘서 예술적 영감을 자극하는 와인과 냉철한 각성효과로 인간의 지성을 일깨우는 커피. 이 대조적인 두 음료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한 바탕 전쟁을 치른 셈이다. 치열한 전투 끝에 투르크 제국의 군사들은 빈에서 물러났지만, 커피만은 남아서 결국 유럽대륙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역사의 전환점보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복욕에 눈이 먼 인간의 손을 빌어 자신의 유전자를 세계에 퍼뜨리게 되었으니, 최후의 승리자는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아닌 커피 그 자신이었다고나 할까.

그러나 이 정도로 커피의 드라마가 끝났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다. 커피의 우아한 향기와 특유의 각성효과에 중독된 유럽인들은 이제 커피 재배에 알맞은 땅을 찾아 세계를 돌아다녔다. 마침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아메리카 대륙까지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던 중이었다.

서인도제도 마르티니크 섬에서 근무하던 프랑스 군인 드 클리외(De Clieu)는 파리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커피 묘목 두 그루를 어렵게 얻었다. 그는 그것들을 자신의 근무지에서 키워볼 생각으로 유리 상자에 소중히 넣어서 돌아가는 배에 올랐다. 항해 도중에 해적도 만나고 폭풍우도 겪으면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커피가 무슨 소용이냐”며 묘목을 바다에 버리려던 선원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먹을 물까지 아껴가며 묘목을 살린 드 클리외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커피는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한다. 오늘날 세계에 널리 퍼진 중남미 각국의 커피는 그렇게 극적인 첫 발을 내딛고 있었던 것이다.

커피는 적도를 중심으로 위도 25도 이내의 소위 ‘커피 벨트’에서 자란다. 중남미 대륙과 카리브해 연안을 중심으로 커피가 번성하고 있는 반면, 그보다 극지방 쪽으로 좀 더 가면 포도가 잘 자라서 ‘신대륙 와인’을 만들어낸다. 유럽에서 각축을 벌이던 와인과 커피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다. 얼마 전 제주산 커피가 첫 선을 보여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커피 벨트’가 제주도까지 확대된 셈이다. 아직은 수확량이 적지만 점차 늘려나갈 생각이라고 한다. 이 땅에 상륙한 커피나무는 또 어떤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된다.

여 윤 규 (홍보팀 차장)

참고자료 :
 〈커피의 역사〉
 (아인리히 야콥 지음, 박은영 옮김, 2005)
 살림 지식총서 89편 〈커피 이야기〉
 (김성윤 지음, 2004)

BOOK

이 달에 들어온 책

임 미 숙 (정책연구팀)

미디어와 현대성

존 B. 톰슨 지음 | 이음 | 423페이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사회학과 교수 존 B. 톰슨의 〈미디어와 현대성〉은 현대사회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된 미디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이론적인 성찰을 제시한다. 이 책은 미디어를 다루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일종의 비판적인 종합이기도 하다. 저자는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단순한 매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행동과 상호행위를 창출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네트워크 시대에 톰슨이 주목했던 정치와 미디어의 깊숙하고 내밀한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트위터나 각종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폭로되고 회자되는 스캔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다. 한국의 광우병 관련 촛불 시위에서 보았듯 오늘날의 네트워크는 한 세대 앞선 매스미디어보다 훨씬 더 거대한 정치적인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과연, 네트워크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복잡해진 정치적 가시성에 어떠한 차원을 덧붙이고 나아가 이를 변형하게 될까? 이 책은 오늘날의 사회와 미디어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론적인 상상력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데 가장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세상을 여는 아침, 최현정입니다!

사위가 고요한 것이 불안해 불현듯 눈이 뜨인다. 시계를 보니 아직 4시 45분. 아, 5분은 더 잘 수 있었는데... 알람보다 일찍 눈이 뜨인 것이 괜히 속상해 진다. 5분을 더 누워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후다닥 옷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 회사에 도착한 시간은 5시 30분. 사무실에 들러 헤드폰과 따뜻한 물 한 잔을 챙겨 들고, 라디오 스튜디오로 향한다.

“오늘, 호~ 해보세요. 입김이 아주 예쁘게^^ 나오네요! 따뜻하게 챙겨 입고 출근하세요! 여기는 <세상을 여는 아침>이고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오프닝 멘트를 끝내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역시나 추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누님. 어찌쵸? 변기물이 얼었네요. 배 아픈데 -.-」

ㅋㅋㅋ 웃음이 터져 나온다. 참 안쓰러운 상황이지만,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청취자의 짧은 문자 하나가 날 즐겁게 한다.

“어쩌나? 고민 좀 되시겠습니다. 뽕뽕 언 변기 위에 앉을까 말까... 혹시, 옆에 드라이기가 있다면 변기에 한 번 쬔어 보는 건 어떨까요? 노래 한 곡 전할게요!”

도움을 주고는 싶는데 뽕뽕한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때 날아온 문자.

「변기도, 핫 팩과 수면 양말 챙겨줘야겠어요!」

역시, 재치 넘치는 한 줄이다. 줄줄이 청취자의 문자 메시지를 소개한다.

「저 해병대 출신이에요. 아직까지 추위는 견딜 만합니다. 근데 추위보다 무서운 잠이 자꾸 다가오네요.」

「히터 뽕뽕하게 틀어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 택시 기사.」

「시골집 마당에 넌 빨래가 동태가 되어 버렸네요.」

기상청을 연결해 자세한 날씨를 알아본다. 영하 10도라고 전하는 유진 리포터. 정말 춥긴 춥군. 이렇게 추운 날이면, 우리 청취자들은 한층 감성적이 되는 것 같다.

「헤어진 그녀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중요한 약속은 자꾸 깜박깜박 하면서도 왜 이런 게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지..... -.-」

한 명이 물꼬를 트자, 뒤질세라 감상에 젖은 문자와 미니 메시지가 속속 들어온다.

「1년 동안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지 24일째예요. 위로 필요합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힘드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별 후 하루하루 날짜를 세고 있는 그와, 결혼을 앞두고 힘들어 하는 그녀를 다독이며 나도 마음이 좀 스산해 진다. 이때 작가 언니가 모니터에 방금 날아온 문자 메시지를 띄워 준다.

「여자 친구, 남자 친구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잊고 산 지 오래입니다. 전, 편의점을 쏠쏠히 지키는 알바생.」

푸하하. 축축해지던 분위기는 금세 어쩔 수 없이 코믹 모드로 돌변한다. 다 같이 깔깔 웃으며, 노래 한 곡 띄우고 시계를 보니 6시 53분. 벌써 끝 곡 나갈 시간이다.

웨딩촬영을 앞두고 잔뜩 긴장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녀와, 병원에 입원하신 시아버지를 위해 약밥을 만들어 들고 가며 맘에 들어 하실지 걱정하는 며느리와, 17시간을 연속 근무한 뒤 졸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를 응원하며 오늘도 아쉬움을 안은 채 방송을 끝낸다.

이른 아침 6시.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세상을 여는 아침, 최현정입니다>는 이렇게 하루하루 채워진다. 비슷비슷한 나날의 소소한 우리 이야기들. 이 이야기가 날마다 새롭고 재미있는 건 청취자들과 매일 대화하고, 일상을 나누며 친해지고 있다는 가슴 벅찬 감동 덕분이다. 그 힘으로 나는 내일도 달콤한 아침잠을 뿌리치고 5시 반에 출근해 방송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세상을 열어요!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로 메시지 보내 주세요. 참, 문자 보내실 때는 50원의 정보이용료가 추가로 듭니다!”



최 현 정 (MBC 아나운서)

인터넷 매체 관련 조정·중재 실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0일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인터넷 매체 관련 조정, 중재 실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작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언론중재법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성동진 (사)한국인터넷자율

정책기구 사무차장과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변호사)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절차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성 사무차장은 “개정 언론중재법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에 대해서도 정정, 반론, 추후보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문법상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불필요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조정·중재 신청인과 언론사의 합의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중재 신청 대상에서 포털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포털사건 처리방안 개선에 대한 실무상의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한 양 조사팀장은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포털사들이 조정·중재가 신청된 기사에 대해 이 사실을 알리는 ‘알림표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사를 매개할 뿐 생산하지 않는 포털사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실무상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0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 발간



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및 상담 교육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담은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보고서가 20일자로 발간됐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전문 리서치기관인 나이스알앤씨(주)에 의뢰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재위원회 전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보고서에는 중재위원회 이용과 관련된 만족도와 함께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반기 중재위원 업무회의 개최

서울중재부는 지난 13일 하반기 위원 업무회의를 열어 2010년 한 해 동안의 업무성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중재부에서도 계획에 맞춰 중재부별로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경남지역 대학 언론사 편집진 간담회

경남중재부는 11월 4일 창원대학교에서 도내 주요 대학교 언론사 편집진을 초청해 특강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대, 영산대, 인제대, 창원대 등 각 대학의 신문사, 방송국, 영자신문 편집진 20여명이 참석했다.



11월말 현재 조정신청 2,064건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11월까지 모두 2,064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591건, 조정에갈음하는결정 138건(동의 102건, 이의 31건, 계속 5건), 조정불성립결정 129건, 기각 118건, 각하 1건, 취하 1,085건(피해구제 872건), 계류 2건이며, 피해구제율은 81.1%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8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509건, 신문 488건, 방송 174건, 뉴스통신 38건, 잡지 24건, 기타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11월까지 77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76건의 중재결과와 1건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35건, 반론청구 28건, 추후청구 12건, 손해청구 2건이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1~11월	정정	1,139	323	60	16(1)	3	69(4)	56	1	601(482)	1	81.5
	반론	160	46	10	1		10	31		62(38)		72.9
	추후	43	16	1	1		1	2		22(20)		90.2
	손배	722	206	22	13(1)	2	49(1)	29		400(332)	1	81.4
합계		2,064	591	102	31(2)	5	129(5)	118	1	1,085(872)	2	81.1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중재 화해결정	기각
1~11월	정정	35	34		1
	반론	28	28		
	추후	12	12		
	손배	2	2		
합계		77	76		1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0년 11월말까지 모두 10차례의 회의를 열어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273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관련 보도 190건, 피의자 신원공개 47건, 사생활 침해 10건, 마약 용량·용법 공개 4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및 형사사건 피해자 신원공개 각 2건, 기타 법익침해가 18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43건, 일간지 91건, 뉴스통신 20건, 주간지 14건, 월간지 5건이다.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11월까지 2,474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33건, 타기관 안내가 232건, 재상담 예정 128건, 법적절차 안내 85건, 자체종결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일간신문 846건, 인터넷신문 784건, 인터넷뉴스서비스 726건, 방송 485건, 주간신문 369건, 뉴스통신 9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11월까지 모두 126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52건, 언론사 25건, 대학 16건, 지자체 14건, 인턴십 프로그램 8건, 공·사기업 3건, 기타 8건 등이다.

COMMITTEEMEN



전·현직 위원장 간담회 개최

권성 위원장은 22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임규운(77), 김두현(84), 박영식(69), 조준희(72, 이상 변호사) 전 위원장들과 간담을 갖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사진 왼쪽부터 조준희, 김두현 전위원장, 권성 위원장, 임규운, 박영식 전 위원장)



인추협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

권성 위원장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권 위원장은 "인추협이 앞장서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0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시상식 참석

이광재 부위원장(경희대 언론정보학부 명예교수)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0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결과보고와 총평을 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과 소통원활화를 위한 지표개발과 유익한 인터넷 활용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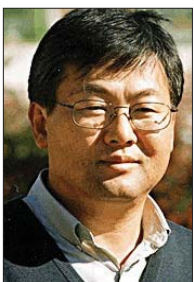
'법조인 양성 실무교육' 심포지엄에서 토론

장현우 위원(서울제1중재부, 변호사)은 11월 15일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법조인 양성 실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장 위원은 "실무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로스쿨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이론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론과 실무가 균형 잡힌 법조인을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연계조정 평가회의' 참석

정준영 위원(서울제4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6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원 연계조정 평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조기조정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와 관련해 정 위원은 "조기조정 제도가 당사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재판부에게도 사건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환경변화와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방향 세미나' 사회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지난 1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변화와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세미나에서는 스마트 미디어시대 도래에 따른 방송제작 환경변화를 점검하고, 미래형 방송콘텐츠에 적합한 정책 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랑의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

장익현 위원(대구중재부, 변호사/ 사진 오른쪽)은 지난 8일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들과 함께 대구 두류공원 내 사랑의 무료급식소에서 지역 노인 및 노숙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식사 배식, 간식 제공 등 봉사활동을 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50)



“잘못된 언론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 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언론중재위원회